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및
삶의 만족도와 양육태도간의 관계 비교

The Relations between Concepts of Children, Parent Role Beliefs,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in
Korean-Japanese Multi-cultural Families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박사과정 박 서 영*
석사과정 하 수 정
석사과정 송 지 영
석사과정 안 현 선
석사과정 조 희 원
교 수 박 성 연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

Doctoral Course : Park, Seo-Young

Master Course : Ha, Soo-Jeong

Master Course : Song, Ji-Young

Master Course : Ahn, Hyun-Sun

Master Course : Cho, Hee-Won

Professor : Park, Seong-Yeon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variables predicting mothers' parenting attitudes in Korean-Japanese multi-cultural families in comparison to Korean families. Differences in parental beliefs, life-satisfaction and parenting attitudes between these two groups were also examined.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from 110 Japanese and 168 Korean mothers of young children. Results revealed that mothers' beliefs on value of child and parental role, life-satisfaction and parenting attitudes were different across the families. Costed-concept of child and low life-satisfaction predicted 'shaming' and 'coercive' parenting for Japanese mothers whereas parental role beliefs as an 'authority' figure predicted 'shaming' parenting for Korean mothers. Life-satisfaction was most influential to predict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for both group.

▲주요어(Key Words) :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Korean-Japanese multi-cultural families),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s), 부모신념(parental beliefs),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 주저자 · 교신저자 : 박서영 (E-mail : 0171450@hanmail.net)

I. 서론

2008년 3월 22일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국내에 정착하여 사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국제결혼 가정을 의미한다(임진숙, 2008). 2008년 통계청 자료(통계청, 2008b)에 의하면 1991년에 1.2%였던 국제결혼 비율이 2007년에는 전체 결혼의 11.1%에 이르렀고, 국제결혼에서의 외국인 아내 구성비는 1991년에 13%에서 2007년에는 75.7%로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는 일본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비율도 증가하여 일본인 아내 비율은 최근 5년간 전체 외국인 아내 결혼 비율 중 5.7%인 6,870명을 차지하는 등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08a). 이렇듯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최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자료들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언어문제를 비롯하여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가족구성원과의 마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여러 가지 적응상 문제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학령기 자녀들도 약 63% 정도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조선일보, 09.01.15; 조선일보, 09.01.28)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이주여성 어머니의 이민실태와 개인적 적응문제에 관한 것이고, 연구대상 어머니들도 대부분 동남아 국가의 여성인 경우가 많았으며(김재련, 2007; 오성배, 2006; 조혜영 등, 2008; 황상십·정옥란, 2008; 황윤주, 2008),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일본인 여성의 국내 이주가 매년 1,000명에서 1,500명 규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일본여성이 다문화가정에서 경험하는 적응문제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이중 문화생활로 인한 부적응을 경험한다(김갑성, 2006)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과거나 현재 상황을 통해 형성해 온 문화적 가치관이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출신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착안하여 일본여성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어머니들의 양육관련 변인들을 양부모 한인가정의 어머니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다문화 가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성의 적응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편, 소수의 연구들이 어머니의 적응문제로 인한 아동의 발달이나 적응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중 다문화가정에서의 양육문제와 자녀의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소수의 선행연구들(곽금주, 2008; 구효진·최진선, 2007)은 대부분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한편, 양육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을 제안한 Belsky(1984)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개인의 특성과 심리적 요인, 그리고 이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자라온 환경과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가치관이나 신념 등)이나 어머니의 현재 상황 및 심리적 상태(정서, 삶의 만족도 등)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김미숙, 2005; 박서영 등, 2007; 박성연 등, 1996; Abidin, 1990; Belsky & Pensky, 1990). 따라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의사소통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양육목표나 가치관 등 인지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곽금주, 2008; 구효진·최진선, 2007)은 대부분 의사소통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양육태도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녀의 학교 부적응문제나 발달상의 문제는 상당부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적응 문제를 이해하고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이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문화가정 일본어머니들의 양육태도에 초점을 둔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라온 문화적 배경에 의해 형성된 부모역할에 대한 신념이나 자녀관, 그리고 이들이 처한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을 중심으로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자녀관은 양육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아동발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임정미·이명조, 2000; 홍숙기, 1999; Miller, 1998; Mills & Rubin, 1992; Sears, 1965). 양육신념에는 양육효능감, 아동 중심적 신념, 학습에 대한 신념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와 직결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신념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역할신념은 부모가 지닌 과거의 경험 뿐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부모-자녀관계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양육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경혜, 1993).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겪는 자녀양육 어려움 중 가장 큰 이유가 가족과의 양육방식 차이라는 연구결과(송미경 등, 2008)는 문화적인 경험에서 오는 부모역할 신념의 차이가 양육실제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가깝다 하더라도 지향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신념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양육태도의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자녀관은 부모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기대하는 심리, 경제, 사회적 만족과 부담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뜻하며(윤미라, 2006), 보상적 자녀관과 비용적 자녀관으로 구분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자녀

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자녀의 출생은 한국생활을 하는데 심리적 거점이 되고 희망이 되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다(김민정 등, 2006; 김상임, 2004). 이로 보아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정서적 만족감을 토대로 자녀를 보상적 가치로 여기는 자녀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겪는 자녀육아 시기는 자기 자신의 문화 적응 시기와 겹쳐져 심리적 혼란과 함께 임신이나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등을 갖게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더욱이 한국사회는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서 특히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다(인봉숙, 2002).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출산과 육아 및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이나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비용적 가치관을 갖는 동시에, 자녀를 돕으로써 얻는 만족감인 보상적 가치관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관이나 그에 따른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1991)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지적능력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입신출세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인 동시에 부모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고 보상을 준다는 자녀관을 갖고 있다(윤미라, 2006). 그러나 자녀의 성공으로 인한 이러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의 희생 및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과 사교육비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심지어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부모들도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양부모 한인 부모들의 경우 보상적 가치관보다는 비용적 가치관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관은 양육태도에도 반영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통하여 보상을 추구하고자 학습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최순자, 2007), 대체로 한두 명의 자녀를 두는 양부모 한인가정의 젊은 어머니들은 애정적 양육태도를 취하면서도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동시에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정규와 최순자(2007)에 의하면, 한국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학습적 측면을 강조하여 자녀의 시간과 행동을 규제하는 간섭이나 통제가 높다. 또한 간섭적이거나 통제적 태도를 애정과 관심의 표현으로 보고 그것을 부모의 역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어머니의 경우 양육적이면서도 권위주의적인 부모역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일본 어머니는 자녀를 신에게로부터 위탁 받았다는 의식을 갖고 자녀를 대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애정적이고 양육적인 태도를 보인다(이정규·최순자, 2007). 다시 말하면 일본인의 자녀양육은 완전주의 및 예절과 습관을 이상시하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녀를

훈육할 때도 부모도 함께 언제나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를 취하거나 자녀에게 경어를 사용한다(임정미·이명조, 2000). 따라서 일본인 어머니들은 애정적, 양육적이면서도 동시에 교사로서의 부모역할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자신의 문화 속에서 습득한 부모역할에 대한 신념이 자녀양육 태도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겪고 있는 문화적 차이나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념이나 양육태도도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한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우울이나 삶의 만족감 등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민성혜 등, 2009; 박서영 등, 2007; 송신영·박성연, 2008; Belsky & Pensky, 1990).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자라온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가정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치관, 신념 등이 결혼 후 한국에서의 가족과 문화적 충돌을 일으킴과 동시에 언어적 문제로 인하여 적응 및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송미경 등, 2008; 임진숙, 2008; 최유진, 2007).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양부모 한인가정의 어머니보다 더 우울하고 비관적이며 양육스트레스가 크고(곽금주, 2008),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 속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양육태도에도 반영된다(박미경, 2007).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정도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권구영·박근우, 2007)에 비추어볼 때, 문화적 차이와 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미약함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일본 어머니들은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한·일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일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와 양육태도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한·일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 168명,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 110명을

<표 1>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집단간 사회인구학적 배경 비교

변 인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양부모 한인가정		t
	n	M(SD)	n	M(SD)	
아동연령(개월)	109	70.30(20.43)	168	60.57(14.18)	4.34**
어머니 연령	98	41.02(6.05)	165	35.98(3.91)	7.38**
아버지 연령	98	43.04(6.00)	157	38.58(4.66)	6.42**
결혼기간	106	125.62(48.52)	164	101.07(41.90)	4.28**
어머니 교육	102	4.75(0.79)	165	4.87(1.01)	-1.15
아버지 교육	103	4.30(1.47)	165	5.22(1.20)	-5.49**
한달수입	107	1.68(0.82)	164	2.71(1.37)	-7.73**

**p<.01

대상으로 하였다. 한인 어머니 자녀의 평균연령은 60.6개월 ($SD=14.18$)이고,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 자녀의 평균연령은 70.3개월($SD=20.43$)이었으며,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각각 36세($SD=3.92$)와 41세($SD=6.05$)이었다. t-검증 결과, 어머니의 연령($t=7.38, df=97, p<.01$)과 자녀의 연령($t=4.34, df=108, p<.01$) 모두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이 양부모 한인가정보다 유의하게 높았다(<표 1> 참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양부모 한인가정과 일본인 모 다문화 가정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41.7%, 40.4%로 가장 많았으며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각 가정의 평균 한 달 수입을 비교해보면 양부모 한인가정은 200만원 미만이 약 24%였던 반면,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은 약 50%로 나타나 양부모 한인가정이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에 비하여 한 달 수입이 더 높았다($t=5.49, df=106, p<.01$)(<표 1> 참조).

2. 측정도구

1) 자녀관

자녀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윤미라(2006)의 척도 중 보상적 자녀관과 비용적 자녀관에 관한 16문항(각각 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보상적 자녀관(긍정적 측면)은 자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 정서적 만족감과 도구적 측면을, 비용적 자녀관(부정적 측면)은 출산 및 양육태도와 관련된 경제적, 심리적 부담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가치를 높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보상적 가치 문항의 신뢰도는 양부모 한인가정과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이 각각 Cronbach's $\alpha=.73$ 과 $.76$ 이었으며, 비용적 가치 문항의 신뢰도는 $.70$ 과 $.71$ 였다.

2) 부모역할신념 척도

부모역할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igel(1985)의 The Role Disposition Questionnaire을 Costigan과 Su(2008)가 재구성한

Chinese parent role beliefs 척도를 사용하였다. Chinese parent role beliefs 척도는 캐나다와 동양의 어머니 양육신념을 연구하기 위해 일반적 부모역할신념을 포함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본 연구에서도 문화적 비교를 위하여 일반적 부모역할신념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양육적 역할 4문항과 권위적 부모역할 3문항, 교사역할 4문항의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육적 부모역할 문항의 예로는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의 친구가 되어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등이 있으며, 권위적 부모역할 문항으로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등이 있다. 또한 교사역할 문항은 '부모는 아이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로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역시 세 요인으로 나누어졌으나 교사역할은 신뢰도가 낮아 제외하고 양육적 부모역할과 권위적 부모역할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적 부모역할 문항의 신뢰도는 양부모 한인가정과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이 각각 Cronbach's $\alpha=.75$ 과 $.78$ 이었으며, 권위적 부모역할 문항의 신뢰도는 $.50$ 과 $.51$ 이었다.

3)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Ryff와 Keyes(1995)가 제작한 심리적 복지감 척도(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 PWB)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들을 꽤 잘 수행해 나간다', '나는 내 삶에서 변화나 향상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PWB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정서적으로 느끼는 복지감의 수준을 나타내며, 원 설문지에서는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전체 문항신뢰도는 양부모 한인가정은 Cronbach's $\alpha=.76$,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은 $.78$ 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4)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Wu 등(2002)이 제작한 양육태도척도(Parenting Styles and Dimensions Questionnaire & Parenting Practices: PSDQ)와 Olsen 등(2002)이 제작한 심리적 통제 및 과보호 양육태도척도(The Psychological Control & Overprotective/Intrusive Measure: PCOIM)를 Park 과 Cheah(2007)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6개 차원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애정·합리적 양육태도’, ‘창피주기 양육태도’, ‘과보호 양육태도’, ‘강압적 양육태도’의 4요인으로 나누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창피주기 양육태도’가양부모 한인가정과 다문화가정이 각각 Cronbach’s $\alpha=.60, .62$ 로 나타났고, ‘과보호 양육태도’와 ‘강압적 양육태도’는 양부모 한인가정과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이 동일하게 각각 Cronbach’s $\alpha=.70, Cronbach’s \alpha=.75$ 로 나타났으며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는 Cronbach’s $\alpha=.90$ 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양부모 한인가정의 경우 서울시에 위치한 5군데 어린이집을 통해 수집하였고,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의 자료는 서울 및 경기도 신도시 지역과 천안의 교회 및 다문화 센터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일본 어머니용 설문지는 이중 언어가 가능한 연구자중 1인이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후 역번역을 통해 재확인한 후 완성되었다. 모든 질문지는 배부 후 15일 이내에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양부모 한인가정 질문지 168부(회수율: 84%)와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질문지 115부(회수율: 55%)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11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t 검증과 부분상관관계 분석 및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 양육태도의 차이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비교를 살펴보면, 비용적 자녀관에서 유의미한 차이($t=-4.71, df=106, p<.01$)가 나타난 반면, 보상적 자녀관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에 비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에 있어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비교적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적 부모역할신념에서 유의미한 차이($t=4.48, df=104, p<.01$)가 나타났으나 권위적 부모역할신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에 비해 양육적 부모역할을 비교적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M=16.44, SD=1.79; M=17.45, SD=1.82$).

그러나 권위적 부모역할에서는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각각 $M=6.40, SD=1.13; M=6.61, SD=1.33$). 삶의 만족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t=-2.04, df=97, p<.05$),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에 비해 삶에 대하여 덜

<표 2>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집단간 비교

변 인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양부모 한인가정		t
	n	M(SD)	n	M(SD)	
자녀관					
비용적 자녀관	107	17.30(2.74)	162	19.02(3.05)	-4.71**
보상적 자녀관	101	24.20(2.76)	107	24.17(3.03)	.08
부모역할신념					
양육적 부모역할신념	105	16.44(1.79)	165	17.45(1.82)	-4.48**
권위적 부모역할신념	106	6.40(1.13)	165	6.61(1.33)	-1.38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98	49.04(4.75)	157	50.24(4.40)	-2.04*
양육태도					
창피주기	108	5.42(1.47)	165	5.03(1.17)	2.30*
과보호	108	6.05(1.42)	166	6.03(1.44)	.09
강압적	106	5.27(1.58)	167	5.88(1.40)	-3.23**
애정·합리	99	30.16(5.59)	167	32.92(5.43)	-3.86**

*p<.05, **p<.01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M=49.04, SD=4.75; M=50.24, SD=4.40$).

한편,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와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창피주기 양육태도($t=2.30, df=107, p<.05$), 강압적 양육태도($t=3.23, df=105, p<.01$), 애정·합리적 양육태도($t=3.86, df=98, p<.01$)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과보호 양육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에 비해 자녀에게 덜 강압적이고(각각 $M=5.27, SD=1.58; M=5.88, SD=1.40$), 덜 애정·합리적인 양육태도(각각 $M=30.16, SD=5.59; M=32.92, SD=5.43$)를 갖는 반면, 창피주기 양육태도는 더 많이 하는 것(각각 $M=5.42, SD=1.47; M=5.03, SD=1.17$)으로 나타났다.

2.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 및 양육태도간의 관계

1)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와 양육태도간의 관계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양육신념, 삶의 만족도가 양육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인 분석을 통해 양육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학적 변인, 즉 아동연령, 결혼기간, 어머니연령, 아버지연령, 어머니교육, 아버지교육을 통제한 부분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비용적 자녀관과 양육적 부모역할신념은 창피주기 양육태도와 정적상관(각각 $r=.29, p<.05; r=.27, p<.05$)을 나타냈고, 양육적 부모역할신념과 삶의 만족도는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각각 $r=.36, p<.01; r=.45, p<.01$)을 나타냈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강압적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r=-.35,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즉, 자녀를 비용적으로 인식하는 어머니와 양육적 부모역할신념이 높은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창피주기 양육태도를 많이 하였으며, 삶의 만족감이 낮은 어머니는 강압적 양육태도를 많이 나타내었다. 또한, 양육적 부모역할신념이 높고 삶의 만족감이 높은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많이 나타내었다.

2)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와 양육태도간의 관계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양육신념, 삶의 만족도가 양육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인 분석을 통해 양육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학적 변인인 아동의 성, 어머니연령, 아버지연령, 어머니교육,

<표 3>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와 양육태도 간의 관계 N=71

	양육태도			
	창피주기	과보호	강 압	애정·합리
자녀관				
비용적 자녀관	.29*	.20	.16	.02
보상적 자녀관	.04	.11	.06	.22
부모역할신념				
양육적 부모역할신념	.27*	.11	-.10	.36**
권위적 부모역할신념	.10	.15	.16	.17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19	-.07	-.35**	.45**

* $p<.05, **p<.01$

<표 4>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와 양육태도 간의 관계 N=127

	양육태도			
	창피주기	과보호	강 압	애정·합리
자녀관				
비용적 자녀관	.26**	.04	.09	-.17
보상적 자녀관	.03	.07	.03	.12
부모역할신념				
양육적 부모역할신념	.04	.04	-.01	.42**
권위적 부모역할신념	.29**	.12	.18	-.1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21*	.05	-.07	.43**

* $p<.05, **p<.01$

<표 5>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창피주기 양육태도와 강압적 양육태도, 애정·합리 양육태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N=71

변인	창피주기 양육태도		강압적 양육태도		애정·합리 양육태도	
	B	β	B	β	B	β
아동연령	-.00	-.03	-.01	-.09	.02	.06
결혼기간	.00	.12	.01	.20	.00	-.04
어머니연령	.02	.09	-.10	-.44	.11	.12
아버지연령	-.05	-.23	.04	.18	-.16	-.17
어머니교육	.03	.02	.25	.14	1.92	.28*
아버지교육	-.10	-.11	-.14	-.15	-.54	-.15
비용적 자녀관	.17	.31*				
보상적 자녀관						
양육적 부모역할신념	.21	.26*			.90	.30**
권위적 부모역할신념			.29	.24*		
삶의 만족도			-.14	-.42**	.55	.42***
F(df)	4.71(1, 62)*		2.88(8, 61)**		5.63(8, 63)***	
R ²	.20		.27		.42	
ΔR^2	.17		.17		.25	

*p<.05, **p<.01, ***p<.001

아버지교육 및 수입을 통제한 부분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표 4> 참조).

그 결과, 비용적 자녀관과 권위적 부모역할신념은 창피주기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각각 $r=.26, p<.01$; $r=.29, p<.01$)을 나타내었으나, 삶의 만족도는 창피주기 양육태도와 부적상관($r=-.21, p<.05$)을 나타냈다. 또한 양육적 부모역할신념과 삶의 만족도는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각각 $r=.42, p<.01$; $r=.43,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즉, 자녀를 비용적으로 인식하는 가치관과 권위적 부모역할신념이 높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는 창피주기 양육태도를 많이 하였다. 반면, 양육적 부모역할신념이 높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는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많이 나타내었다.

3.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1)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양육신념, 삶의 만족도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사회인구학적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 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를 투입하여 양육태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보호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창피주기 양육태도, 강압적 양육태도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피주기 양육태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표 5>에서 보듯이 비용적 자녀관($\beta=.31, p<.05$)과 양육적 부모역할신념($\beta=.26, p<.01$)이 창피주기 양육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비용적 자녀관과 양육적 부모역할신념 순으로 창피주기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쳐, 비용적인 자녀 가치관을 높게 인식하고 양육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창피주기 양육태도를 많이 하였다.

강압적 양육태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beta=-.42, p<.01$)와 권위적 부모역할신념($\beta=.24, p<.05$)이 강압적 양육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삶의 만족도, 권위적 부모역할신념 순으로 강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낮고 권위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강압적 양육태도를 많이 하였다.

또한 애정·합리 양육태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beta=.42, p<.001$)와 양육적 부모역할신념($\beta=.30, p<.01$)이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삶의 만족도, 양육적 부모역할신념 순으로 애정·합리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양육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많이 하였다.

2)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양육신념, 삶의 만족도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 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를 투입하여 양육

<표 6>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창피주기 양육태도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N=127

변인	창피주기 양육태도		애정·합리 양육태도	
	B	β	B	β
아동성별	.14	.06	-.71	-.07
어머니연령	.05	.15	.27	.20
아버지연령	-.06	-.25*	-.29	-.26*
어머니교육	.12	.10	-.71	-.14
아버지교육	.04	.04	.04	.01
한달수입	.03	.04	.75	.20*
비용적 자녀관	.10	.25**		
보상적 자녀관				
양육적 부모역할신념	.26	.28**	.84	.28**
권위적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			.41	.32***
<i>F(df)</i>	3,50(8, 118)**		7.65(8, 120)***	
<i>R</i> ²	.19		.34	
ΔR^2	.14		.22	

* $p < .05$, ** $p < .01$, *** $p < .001$

태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강압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창피주기 양육태도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피주기 양육태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표6에서 보듯이 인구학적인 변인을 통제한 후 권위적 부모역할신념($\beta = .28, p < .01$)과 비용적 자녀관($\beta = .25, p < .01$)이 창피주기 양육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경우 권위적 부모역할신념과 비용적 자녀관 순으로 창피주기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권위적인 부모역할 신념을 가지고 있고 비용적인 자녀 가치관을 높게 인식하고 있을 때 창피주기 양육태도를 많이 하였다.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beta = .32, p < .001$)와 양육적 부모역할신념($\beta = .28, p < .01$)이 애정·합리양육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양육적 부모역할신념 순으로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양육적인 부모역할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많이 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기 자녀를 둔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 및 양육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러한 변인들과 양육태도 간의 관계 및 각 변인들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 및 양육태도에서의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간의 차이

첫째,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는 자녀관에서 차이를 나타내어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보다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가 자녀를 비용적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가 높은 사교육 열기로 인해 자녀에 대해 교육비용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이정규와 최순자(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와 동시에 자녀로 인한 양육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인봉숙, 2002) 비용적 자녀관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상반된 결과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의 경우 엄마로서의 경험을 하면서 한국생활을 하는데 심리적 거점이 되고 희망이 되기도 한다는 연구 보고(김민정 등, 2006)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역할신념에 있어서는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보다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가 부모역할을 양육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적 부모역할신념은 애정적·양육적 태도의 표현을 중요하다고 보는 신념이다.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이정규와 최순자(2007)의 연구에서 한국 어머니는 자신이 애정적 양육을 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볼 때, 결국 한국 어머니들은 애정적·양육적 태도를 표현하는 부모역할을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인 모 국제결혼 가정의 문화적 갈등을 연구한 김석란(2008)에 따르면 일본인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상대에게 표현하는데 인색하므로, 일본 출신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녀를 대할 때 애정표현과 스킨십을 중시하는 양육적 부모역할신념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에 비해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가 삶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국생활 적응,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경제적 문제, 시댁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권구영·박근우, 2007; 박정숙, 2007). 본 연구에서는 특히 두 집단 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한 달 평균수입이 한국가정에 비하여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요인도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과보호 양육태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보다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가 강압적 양육태도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를 둔 한국과 일본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교한 최순자(2007)의 연구에서 한국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데 있어 애정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자율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었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다른 측면보다 학습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양부모 한인가정의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함께 학습을 강요하는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에 비하여 창피주기 양육태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도덕성이나 가치관과 관련된 교육방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土居建郎(1991, 이정규·최순자, 2007, 재인용)에 따르면 죄의식을 중요시하는 일본인은 어려서부터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왔으며, 집단의 질서와 규칙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교육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교육기법이 일반적인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자신이 받은 양육경험을 토대로 자기 자녀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일깨우는 양육방식을 취하는 것일 수 있다.

2.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와 양육태도의 관계

첫째, 자녀를 비용이 드는 존재로 인식하는 비용적 자녀관을 가졌을 경우 두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창피주기 양육태도가 나타났다. 또한 흥미롭게도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양육적 부모역할을 중시하는 경우에,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는 권위적 부모역할을 중시하는 경우에 창피주기 양육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비용이 든다고 인식할 때 창피주기 양육태도를 한다는 것은 자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지각하는 부정적 자녀관이 곧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경우 권위적인 부모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창피주기 양육태도를 하는 반면,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양육적 부모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창피주기 양육태도를 한다는 것은 한·일 양국의 문화적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 어머니의 경우 권위적인 신념을 가진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서기남·문혁준, 2008; Baumrind, 1971)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는 양육적 부모역할을 중시할수록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하나의 긍정적 교육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집단이나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단속하는 전통에 근거하여, 창피를 줌으로써 도덕심을 유발하는 일본인의 문화적 특성(土居建郎, 1991; 이정규·최순자, 2007)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의 경우 낮은 삶의 만족도가 강압적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부모 한인가정의 경우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삶의 만족감이 낮을수록 지시/통제, 거부/적대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인다는 송신영·박성연(2008)의 연구와 상반된 연구결과이다. 이는 일본에 비해 양부모 한인의 어머니가 대체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을 많이 취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윤인진 등, 2007; 최순자, 2007)에 비추어볼 때,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하는 것이 양부모 한인 부모에게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방식으로서 특정 변인과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반면,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감으로 인한 부정적 심리상태가 강압적 양육태도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적 상태는 부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선행 연구결과(전현진·박성연, 1999; Belsky & Pensky, 1990)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 모두 부모역할을 양육적인 것으로 인식할수록, 삶에 만족할수록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적인 부모역할이 직접적인 애정적 정서표현과 관계되는 것인 만큼 이것이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높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 간 관계를 설명한 송신영·박성연(2008)과 박서영 등(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이다.

3.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

첫째, 창피주기 양육태도에 대하여는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자녀를 비용이 드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으로 양육적인 부모역할을 중시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경우 권위적 부모역할을 중시하는 것, 자녀를 비용이 드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순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에 관한 해석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녀에게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창피를 주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야기하는 것일 수 있으며, 또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양육적 부모역할 신념이,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경우 권위적 부모역할 신념이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보다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비용적 부담에 더 많이 영향을 받아 창피를 주는 양육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인 모는 양국의 자녀 양육관 차이로 인해 양육의 비용이 과도하거나 부담스럽다고 느껴서 자녀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출신의 어머니는 한국의 교육 풍토와 이로 인한 양육비용에 대하여 더 스트레스로 느낄 수 있으며, 이렇게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질수록, 그 다음으로 권위적 부모역할을 중요시할수록 강압적 양육태도를 하는 반면,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경우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권위적 부모역할을 중요시할수록 강압적 양육태도를 나타낸 본 연구결과는 자녀의 요구에 둔감하고 완고하며 그 통제태도가 직접적인 명령, 신체적인 강제, 질책, 금지 등과 같은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부모들은 대체로 권위주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서기남·문혁준, 2008; Baumrind, 1971)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의 경우 낮은 삶의 만족도가 어머니의 강압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는 것은,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일반가정의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수동적이고 무관심한 태도와 강압적 전달방식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곽금주, 2008; 김경숙 등, 2007)를 뒷받침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경우 특히 심리적 변인인 삶의 만족도가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셋째,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 모두 삶의 만족감과 양육적 부모역할 신념이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나 심리적 복지감과 같은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내는 선행 연구들(노진아·이숙, 2003; 민성혜 등, 2009; 박서영 등, 2007; 송신영·박성연, 2008; 전현진·박성연, 1999)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부모역할 신념 등 인지적 측면이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안지영의 연구결과(2001)와도 일치하며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결론적으로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과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신념, 삶의 만족도 및 양육태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양육태도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영향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창피주기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서 익혀온 양육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창피주기 양육태도에는 비용적 자녀관, 양육적 부모역할신념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양국의 자녀 양육관 차이로 인해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과도한 양육비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큰 경우 창피주기 양육태도를 하는 경우일 수 있다. 반면, 양육적 부모역할신념을 가진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수치심을 주는 일본의 교육기법에 일환으로 창피주기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나타낸 것일 수 있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의 양육태도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우선 본 연구는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의 표집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울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양부모 한인가정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어머니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를 요한다. 또한 응답 자료의 회수율이 낮아 자료의 편파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두 집단 간 아동의 연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에서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이 어머니의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져 주관적인 판단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오류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심층면접이나 직접 관찰,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인식하는 양육태도 측정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본 연구는 그간의 다문화가정 연구에서 초점이 되었던 실태조사나 적응문제, 아동의 언어·인지발달 등의 측면과 달리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예측변인들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동남아 지역이나 중국 출신 다문화 가정 연구와 달리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특성 및 양육태도를 이해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 어머니의 출신국가를 다양화하고 이들을 비교해봄

으로써 다문화가정의 특성과 출신 국가의 문화적 배경에 따른 양육태도 및 관련 변인의 차이를 알아본다면 다문화가정의 양육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 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6.
- 구효진·최진선(2007).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43-67.
- 권구영·박근우(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2007년 제 2호, 197-219.
-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공진희·이민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부모의 특성과 유치원 교육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311-335.
- 김경혜(1993). **자녀의 지적 특성, 양육,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17-48.
- 김석란(2008). 한일국제결혼을 통해 본 문화적 갈등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37, 287-299.
- 김재련(2007).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진아·이숙(2003).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직업특성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행동. **한국가정과학회지**, 6(1), 81-93.
- 민성혜·이민영·최혜영·전혜정(2009). 다문화 가정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7(1), 55-63.
- 박미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서영·박성연·Cheah, C(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2), 29-51.
- 박성연·전춘애·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정숙(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순천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기남·문혁준(2008). 발달적으로 적합한 실제(DAP)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기 양육경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9(3), 23-40.
- 송미경·지승희·조은경·임영선(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송신영·박성연(2008).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5), 19-33.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성배(2006).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윤미라(2006). **고등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적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인진·임창규·정재영(2007). 자녀 양육방식에 관한 직업계층 및 국가별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8(3), 167-192.
- 이정규·최순자(2007). 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도덕성과의 관계. **아동교육**, 16(2), 145-158.
- 인봉숙(2002). **한일 국제결혼가정 2세의 한국생활적응 실태조사 연구: 천안시 거주 통일교인 가정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미·이명조(2000). 한국 및 일본 유치원 학부모의 자녀양육: 한국의 Y유치원, 일본의 K유치원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1), 137-159.
- 임진숙(2008).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진·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 조선일보(2009. 1. 15). www.chosun.com 에서 이주여성이 울고 있다. 2009년 1월 29일 인출.
- 조선일보(2009. 1. 28). www.chosun.com 에서 국내다문화가정 실태. 2009년 1월 29일 인출.
- 조혜영·서덕희·권순희(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8(2), 105-134.
- 최순자(2007). 한국과 일본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 **한국일본어**

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20-923.

최유진(2007).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접근.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08a). 사회통계국 인구동향. 혼인종류/외국인 처의 국적별 혼인 2001~2007년 자료(www.nso.go.kr.)

통계청(2008b).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년도(1991~2007).

한국여성개발원(1991). **평등한 부부**. 교육자료, 300-320.

홍숙기(1999). 한국부모의 자녀교육태도 및 방식. 서울: **한국심리학회**, 15(3), 21-36.

황상심 · 정옥란(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아동들의 언어특성 관련 상관 연구. **언어치료연구**, 17(1), 81-102.

황윤주(2008). **결혼이민자 여성 농촌지역 유입과 '적용' 경험**.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土居建郎(도이 다케오)(1991). **甘えの構造**. 東京: 弘文堂.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hess.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4(1), 1-103.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Belsky, J., & Pensky, E.(1990).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s: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R. A, Hinde & J.Steven-Hinde(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pp. 193-217). Oxford, England.

Park, S., & Cheah, C.(2006). Korean mothers' proactive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1), 24-34.

Costigan, C., & Su, T, F.(2008). Cultural predictors of the parenting cognitions of immigrant Chinese mothers and father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2(5), 432-442.

Miller, S.(199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Mills, R., & Rubin, K.(1992). A longitudinal study of maternal beliefs about children's social behaviors. *Merrill-Palmer Quarterly*, 38(4), 494-512.

Olsen, S., Yang, C., Robinson, C., Wu, P., Nelson, D., Nelson, & Jin.(2002).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al outcomes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 B.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pp.235-26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 Books.

Ryff, C, D., & Keyes, C, L, M.(1995). The structure of psycho-

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Sears, R.(1965). *The rearing theory of child development*. N.Y. : Harper & Row Publisher.

Sigel, I. E.(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pp.345-371). Hillsdale, NJ : Erlbaum.

Wu, P., Robinson, C., Yang, C., Hart, C., Olsen, S., Porter, C., Jin, S., Wo, J., & Wu, X.(2002).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mother's parenting of preschooler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 481-491.

접수일 : 2009년 09월 15일

심사일 : 2009년 10월 05일

심사완료일 : 2009년 11월 30일